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0. 7.(수) 16:00
(지 면) 2026. 10. 8.(목) 조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터리 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실시

- 관계 기관과 합동훈련으로 배터리 화재 대응 역량 강화
- 실제 배터리 화재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소방대 도착 후 화재 진압까지 훈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하승철, 이하 ‘국정자원’)은 10월 7일(수) 대전 본원에서 유성소방서와 함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정자원 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할 수 있는 배터리 화재에 대비해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리튬이온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온도 상승과 재발화 등의 위험이 커 초기 대응과 관계 기관 간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정자원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현장 중심의 훈련을 진행했다.

>> 실제 화재 상황 가정한 초기 대응 및 관계 기관 신속 공조

이번 훈련은 대전 본원 배터리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설정해 진행됐다.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 근무자는 상황을 확인한 즉시 주변에 알리고 국정자원 방재실을 중심으로 화재 발생 위치와 상세 상황을 119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한편, 인명 대피와 초기 소화 등 초동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

현장에 출동한 유성소방서 소방대는 배터리 화재 특성을 고려한 진압과 안전조치를 수행했다. 국정자원은 소방대의 원활한 현장 진입과 화재 진압을 돕기 위해 출입 통제, 현장 안내, 전기설비 관련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했다.

아울러,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위험에 대비해 인명 대피, 현장 통제 등 자위소방대의 역할과 대응 절차도 함께 점검했다.

>> 반복 훈련과 시설 점검으로 국민 중심의 중단 없는 행정망 구현

국정자원은 지난해 발생한 대전 본원 화재를 계기로 화재 예방과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무정전전원장치(UPS) 및 배터리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와 화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방 훈련과 관계 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시설 운영 담당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하승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이번 합동 소방훈련은 배터리 화재와 같은 특수한 화재 상황에서 관계 기관이 신속하게 협력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훈련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 점검과 반복적인 현장훈련을 통해 국민의 중요한 정보 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총괄과	책임자	과 장	곽병관 (042-250-5300)
		담당자	사무관	김철범 (042-250-5350)

